

## 조흥은행 매각반대 및 본점이전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조흥은행장)님께

국가경제의 활력화와 자율성장기반 확충은 물론 중대한 지역현안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들은 최근 조흥은행 정부지분을 금년 안에 매각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논리에 따라 금융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99년 11월 조흥은행이 충북은행을 흡수 합병하면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를 통해 조흥은행 본점을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중부권으로 이전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합병이후 우리 도민들은 종전 충북은행이 이 지역의 대표적 금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했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조흥은행이 대행해 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여 왔었습니다.

따라서 조흥은행 본점의 청주이전은 그동안 조흥은행이 충북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 되었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함으로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부지분을 타 은행에 졸속매각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을 농락하는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민을 다시금 우롱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부가 갑작스럽게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충북도민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배제된 비정상적인 매각 기도로 판단하여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공언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지분 매각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충북도민들에게 사과하라**

1999년 11월 정부가 약속한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이전 등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내용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며, 이전 약속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조흥은행 본점 이전을 미루고 다시 타 은행에 매각·합병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조흥은행본점의 청주 이전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충북은행과 합병하여 출범한 조흥은행의 본점 이전은 반드시 충북이여야 하며, 금융기반이 취약한 우리도의 상황과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지역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전 대책을 조속히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정책을 투명하게 하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금융정책은 전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계획입안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0만 충북 도민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의원 일동은 그 뜻이 관철 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2년 11월 11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